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수상작

인포그래픽

Information과 Graphic의 합성어로 텍스트, 데이터, 통계 등의 복잡한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적 표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시각화한 문서

최우수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모습!

조정민



RCP 4.5 시나리오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은
전남해안 충남 서부안, 경기와
경북 서부 해안 지역으로 확장
RCP 4.5 시나리오는
평균 기온은 14.0°C로
현재 기후값 보다
+3.0°C가 상승함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모습!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에 따라 RCP시나리오가 나뉜다. 이중 RCP4.5시나리오와 RCP8.5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21C후반기 한반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먼저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컨셉을 기계적으로 나타내었으며, 한반도를 픽셀화하여 아열대지역을 빨간 부분으로 나타내어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곳곳에 6대 온실가스 기호들과 해수면 상승전망, 극한기후 전망을 RCP4.5, RCP8.5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하여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와 같이 RCP4.5와 RCP8.5시나리오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우수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온난화 일보

김예원, 정면우

온난화 일보

제작: 2018년 4월 20일 글로벌 날
제작: 57 쪽수: 20
판권: 2018년 4월 20일
판권: 2018년 4월 20일
제작: 2018년 4월 20일
제작: 2018년 4월 20일

012)345-6789

www.onnahnailbo.com

ON NA NA

2018년 4월 20일 글로벌 날

농산물생산량 감소

반발하는 고온현상으로 인해 열대지역의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밀 수확량이
50%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열대상 빠개집한민
말라리아는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
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천만명~
6천만명
말라리아 감염

아마존 열대우림 붕괴, 이에 생물 종 50% 멸종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이 계절성 산림 또는 사하나 지역으로 번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감소와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아마존 생물종의 절반 가량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드라 면적의 절반 감소

북극 분드라 면적의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성물과
자기주인공들이 살
의 터전을 잃어 멸종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소한 분드라 면적

남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수자원 30~50% 감소

최근 기온 상승에 강수량과 하천 유량에
영향을 미쳐 남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의
수자원이 강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명중1명

아프리카 대형정부가 소멸되어 출국인구의
1/4 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소멸, 뉴욕, 런던 위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작은 섬나라와 해안
대규모 도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CO₂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15~40%

급속한 기온변화에
직접 못 한 생물 종
최대 40% 가
멸종 위기에
처였습니다.

최대 5억 5천만 기온 고통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느려져서 식량난과
빈곤문제가 심각
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산성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로 녹색여� 반복되어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기 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새村民们는 더 이상 조개
구이를 먹을 수 없다며 한식했습니다.

지구저금통
모금 운동의
053)
123-4567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100년 후 지구의 모습과 그에 따른 영향들, 그리고 해결방안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미래의 신문을 그래프와 픽토그램 등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효과를 더했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신문을 컨셉으로 잡아 기사뿐만 아니라 귀여운 광고들을 함께 넣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우수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100년후 남아있는 도시는?

강민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100년후의 미래에 해수면 아래로 가라 앉게되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일까라는 생각으로 인포그래픽을 기획하였다.

국토침수위기에 놓여있는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와 해안 도시들을 일부 보여주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당 섬과 도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위해 이러한 인포그래픽을 기획하였다.

장려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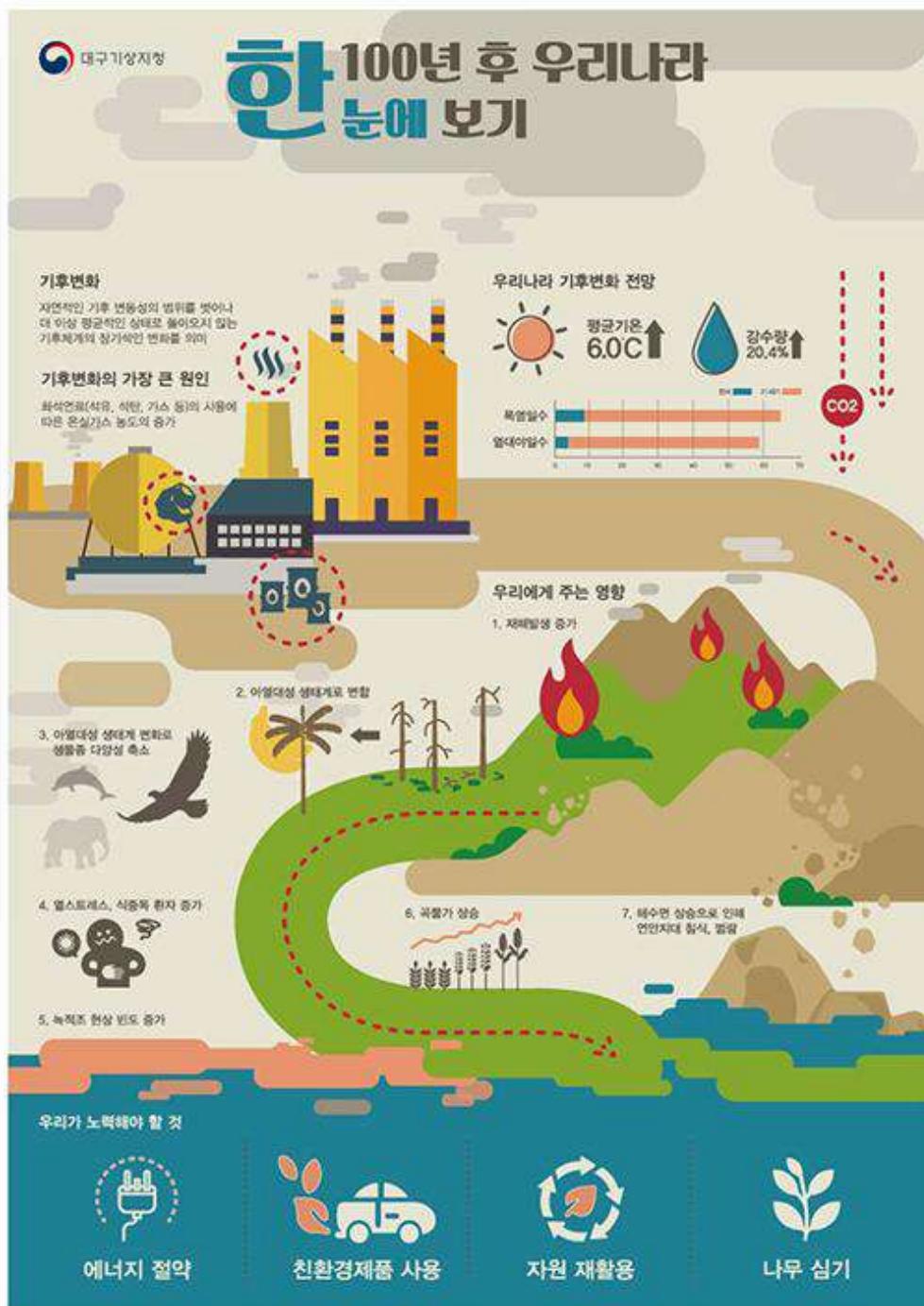
해상해저 복합도시

조정한, 차종민



100년 후 우리나라 한눈에 보기

조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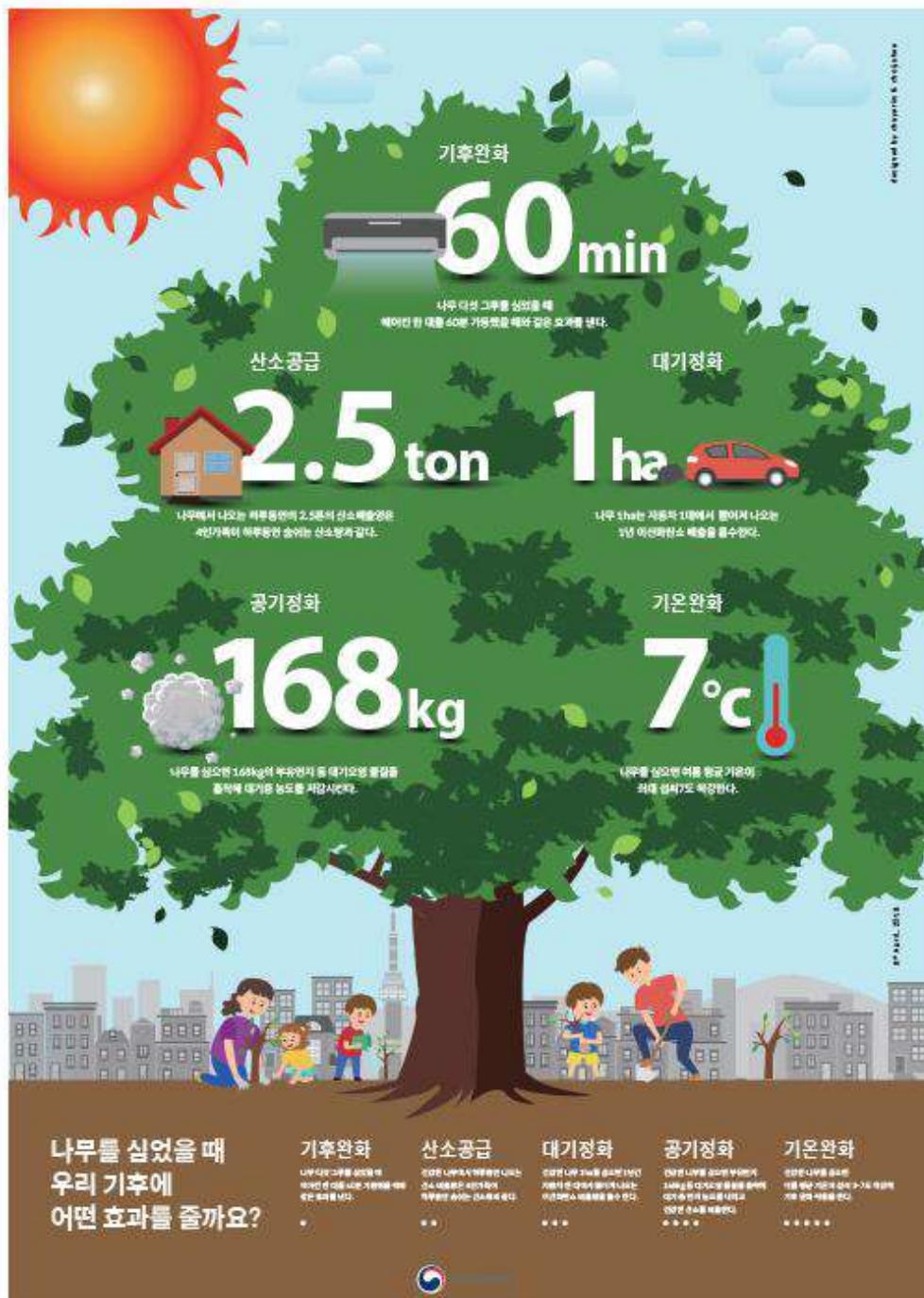
10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하나의 연결된 길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변화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이미지와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한 텍스트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기후전망을 아이콘이나 표, 그래픽 등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장려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차예림, 최주희



나무가 100년 후 다가올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 나무를 중심으로해서 인포 그래픽으로 표현 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나무가 기후 변화에 주는 효과를 숫자를 이용하여 강조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을 이용하여 디자인했다.

장려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2100년생 박OO의 산책

조승연, 이하은, 이해림



가상의 인물 '박OO'을 설정하여 산책할 때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100년 후 일상 생활의 모습을 실감 나고 와닿게 표현하였다. 100년 후, 한 사람이 산책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상상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림으로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118년, 숨막히는 기후

김혜정, 김희은

2118년,
숨막히는 기후온실가스로 인한
인위적인 기후 변화CO₂
이산화탄소CH₄
메탄

아열대 기후

거울의 소멸로 인한
생태계 변화
이상기후로 봄/식물 멸종

가뭄과 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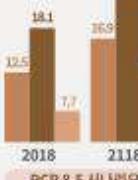
“엘나뇨” “라니나”로 인한
자연재해가 반복적 발생
농작 발생 및 식수 부족

태풍

멸대 지역 대기 및
고수은 지역이 많아짐
태풍의 발달 조건 상승

세계보다 빠른 한국

4.5°C↑



대구기상자청

기온 상승이 미래에
끼치는 6가지 영향N₂O
이산화질소CFC
프레온가스

감축과 적응으로 모두 대비합시다!

환경이 변화하지 않게 유지 &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쓰레기 10% 감소
비출량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사용전기 및 물 절약하기
플러그 정리 및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 절수재난행동요령 숙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행동요령 숙지실내온도 적정 유지
겨울 20°C↓
여름 27°C(±1)탄소 절약하기
버스 타기 / 지하철 타기
자전거 타기 / 걷기
연간 12kg의
이산화탄소 줄수

나무심기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피해들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 이로 인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후변화인 미세먼지가 가장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여 이를 컨셉으로 잡고 “2118년, 숨 막히는 기후변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내용 구성은 인위적 기후변화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남녀 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그로인해 한국의 기후변화가 세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통계 시나리오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연재해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어 안전 불감증과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주려는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최악의 미래’에 대해 감축과 적응으로 인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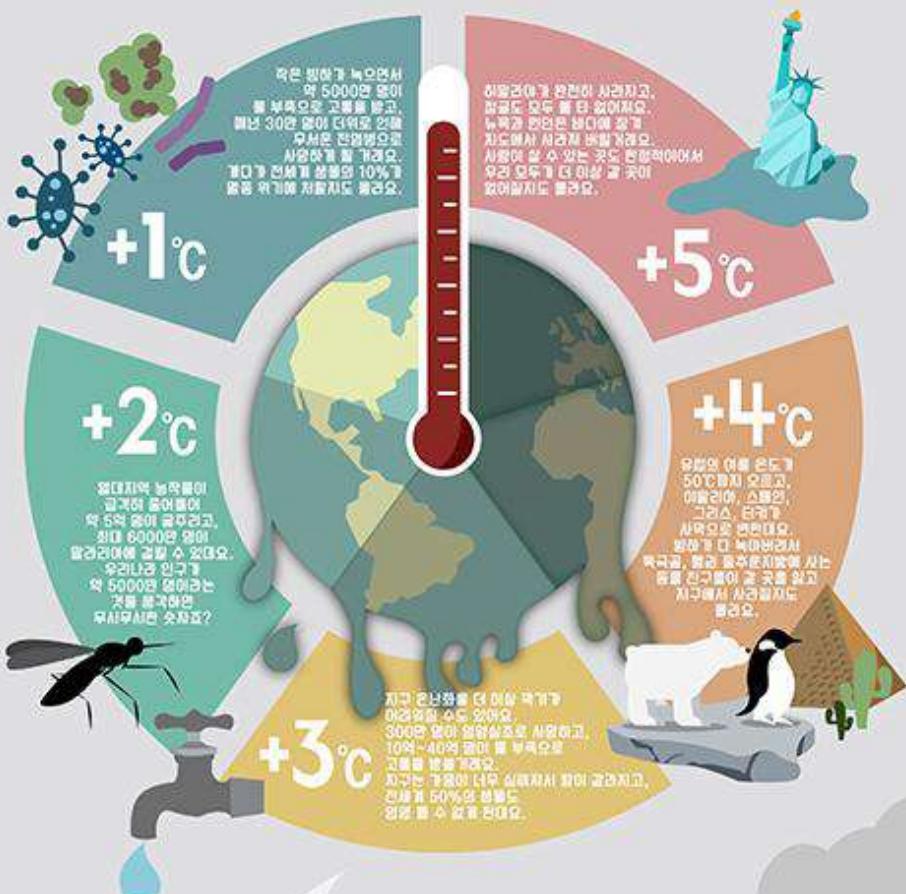
대구기상자청

여러다 지구가 녹아버릴지도 몰라요!

김예빈

여러다 지구가 녹아버릴지도 몰라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우 5°C일 뿐인데?' 하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변화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미 지구는 예전에 비해 많이 뜨거워졌대요. 이렇게 기온이 자꾸자꾸 높아지다 보면 100년 후에는 지구가 병들어 버려서 우리 모두 지구에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는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C씩 상승함에 따라 야기되는 변화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자 했다.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지구가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녹아내리는 지구, 단계적으로 썩어가는 지구, 온도계 등의 그림을 이용해 주제를 나타내었으며, 지구 주변으로는 기온 상승에 대한 정보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배치하여 이해를 돋고자 했다. 마지막 하단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 시킴과 동시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마무리 하였다.

온실효과로 인한 100년 후의 지구는?

김지현, 서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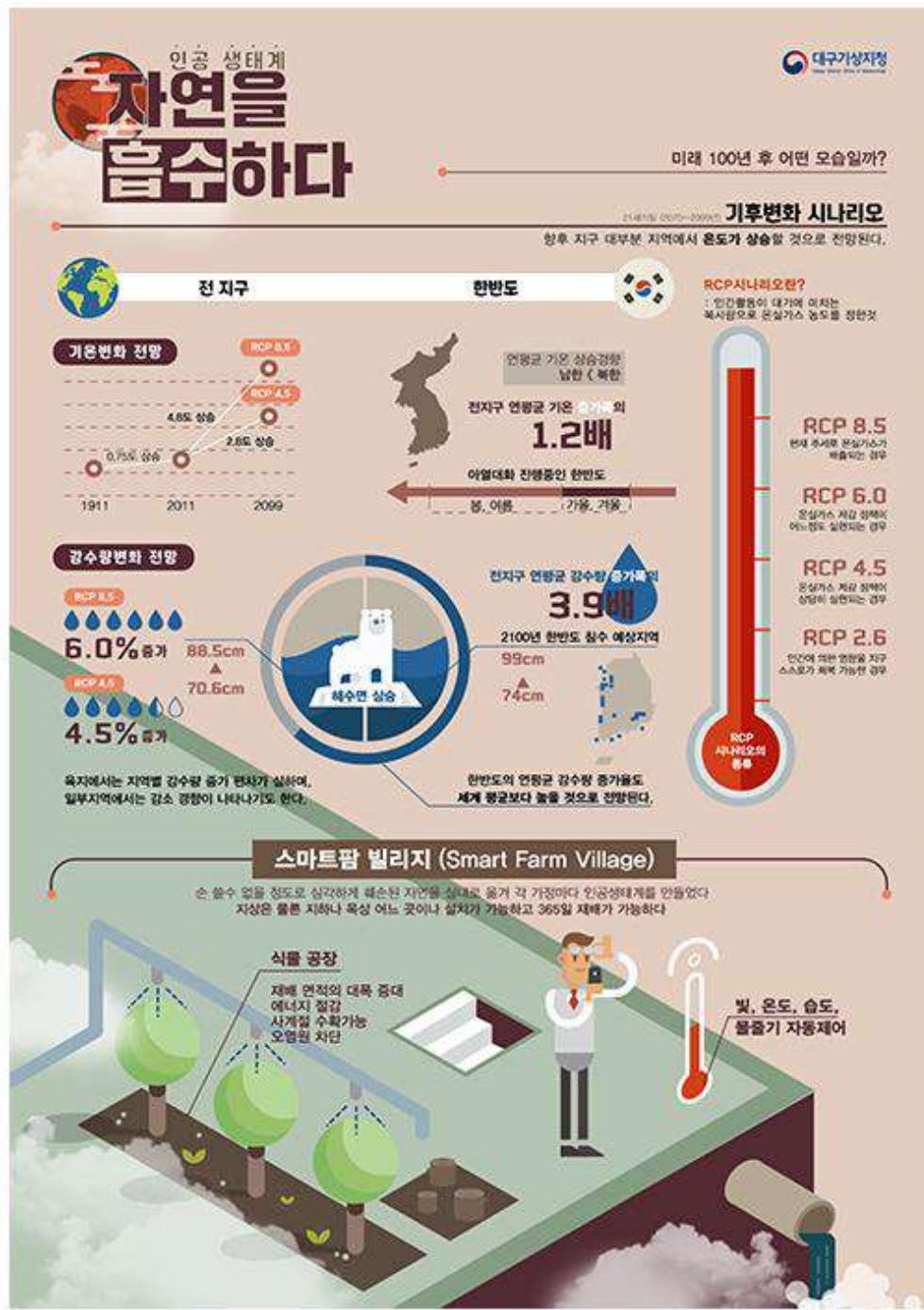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앞으로 온실효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정하였으며, 문자보다는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100년 후의 모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진행 중인 상황들을 함께 가정함으로써 온실 효과로 인한 기후변화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자연을 읍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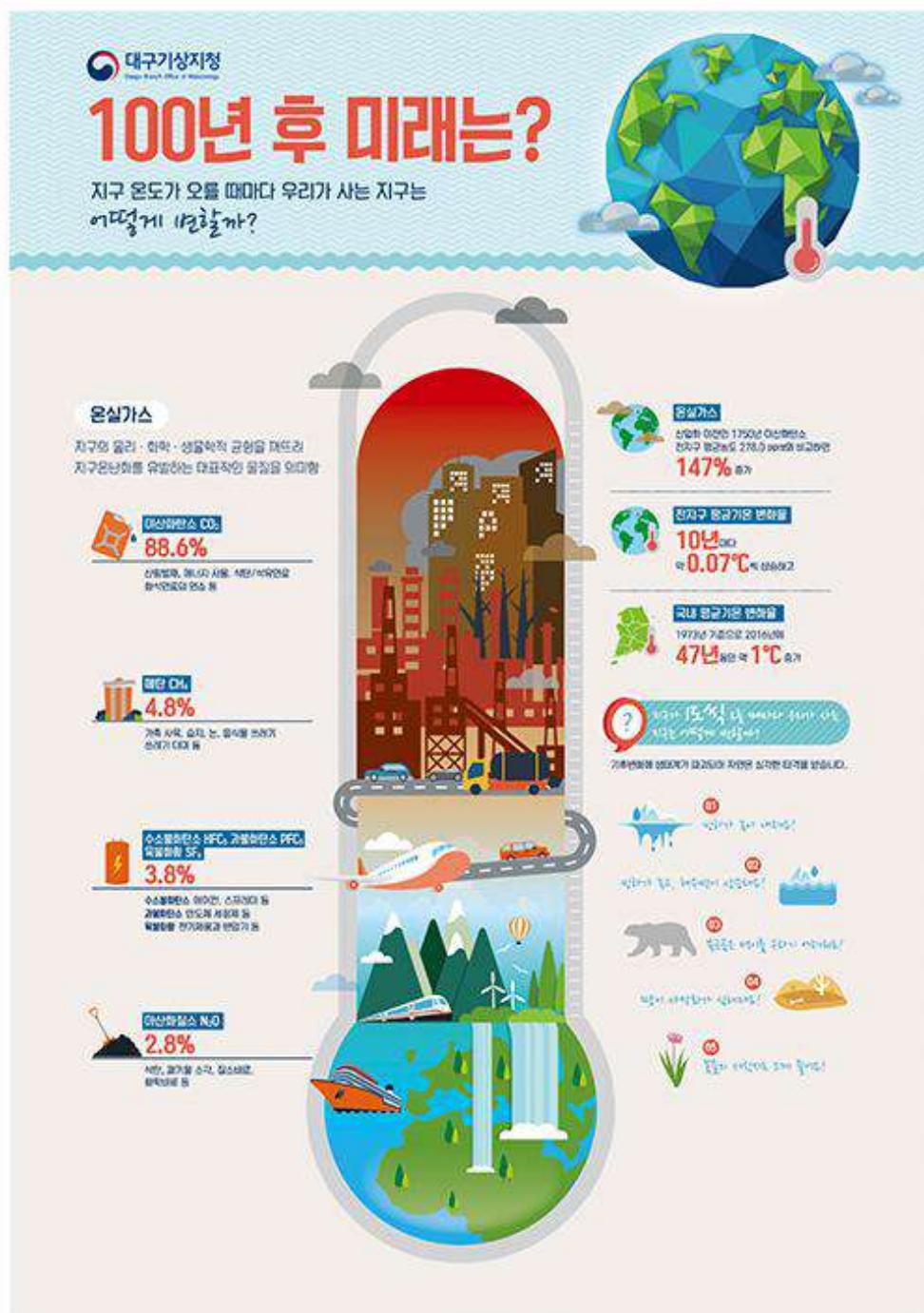
박민정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100년 후 모습'이라는 주제를 보고 향후 100년 뒤에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야외가 아닌 실내에 인공 생태계를 꾸려 자급자족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미래지만,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이미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도시 농업이라는 테마를 뽑아 '스마트 팜 빌리지'라는 주제를 정하였다. 제목 그대로 자연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으로 흡수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인공 생태계를 상상하여 인포그래픽을 디자인하였다.

100년 후 미래는? 지구 온도가 오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

엄윤희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주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는 변화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연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온도계를 사용하였으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함께 표현하였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위기 속에 발견된 기회

김서진,조미라,천미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위기 속에 찾은 기회**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및 적응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 생존전략과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며 그래야만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개미를 주인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의 위기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기회들로 인해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하여 표현해 보았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2100년, 우리나라의 식탁

김슬기

2100년, 우리나라의 식탁

양이 어획되는 생선, 고등어

해수온도 상승으로 영동, 대구, 동부해 등 한류선 어종이 감소하지만, 고등어, 참치 등 난대성 어종이 많이 어획될 것이다.



참치
멸치
자본생

오크리로 만든 김치

15-18도의 온난성 기후에서 재배되는 배추가 기후변화로 자비생성이 감소하게 되어, 비슷한 식감의 오크리, 치요데, 분모이가 김치의 재료로 대신하게 된다.



후식에 사라대신 파파야

사과 재배 가능지역이 북상해 전 국토의 1%로 급속히 감소하여 사라대신 아열대 과일이 많이 재배 될 것이다.



아연과
나타 과일
임고
구마에
라보카도



세계 먹을 수 있는 오장어 것갈

연안 수온 0.025°C/년의 상승률에 따라 적조현상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날, 동해안에서 난대성 어종인 오장어를 많이 어획할 것이다.



아열대 작물로 재료가 바뀐 비빔밥

주로 재배 작물인 지금의 재료들이 재배지가 북상하여, 고온의 여름 고온형 풍경이나 아열대 작물이 비빔밥 재료로 대체 될 것이다.

많이 사용되는 기름, 물리브로

습지의 수입국가에서 재배국가로 바뀌게 되어, 물리브로 등 새유유자점 자원한 것으로 구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열대 자비 재물



100년, 우리나라의 식탁의 모습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 표현해보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의 작물이 사라지고, 아열대 작물이 대체됨에 따라 현재와 다르게 미래에는 다른 재료로 바뀌는 음식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이나 김치가 어떤 재료로 바뀌는 지, 또 주로 먹던 과일은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 지 등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반전의 시나리오

정우준



미래기후를 전망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시나리오”라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의 모습을 영화의 필름처럼 풀어가서 가독성을 높였으며, 시나리오는 수정될 수 있고, 반전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밝지만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100년 후 기후변화 가상현실 VR체험

모다혜, 황인범



100년 후 기후변화
가상현실
VR 체험



“사과 과수원이 100년 후에는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일로 바뀐대요”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가상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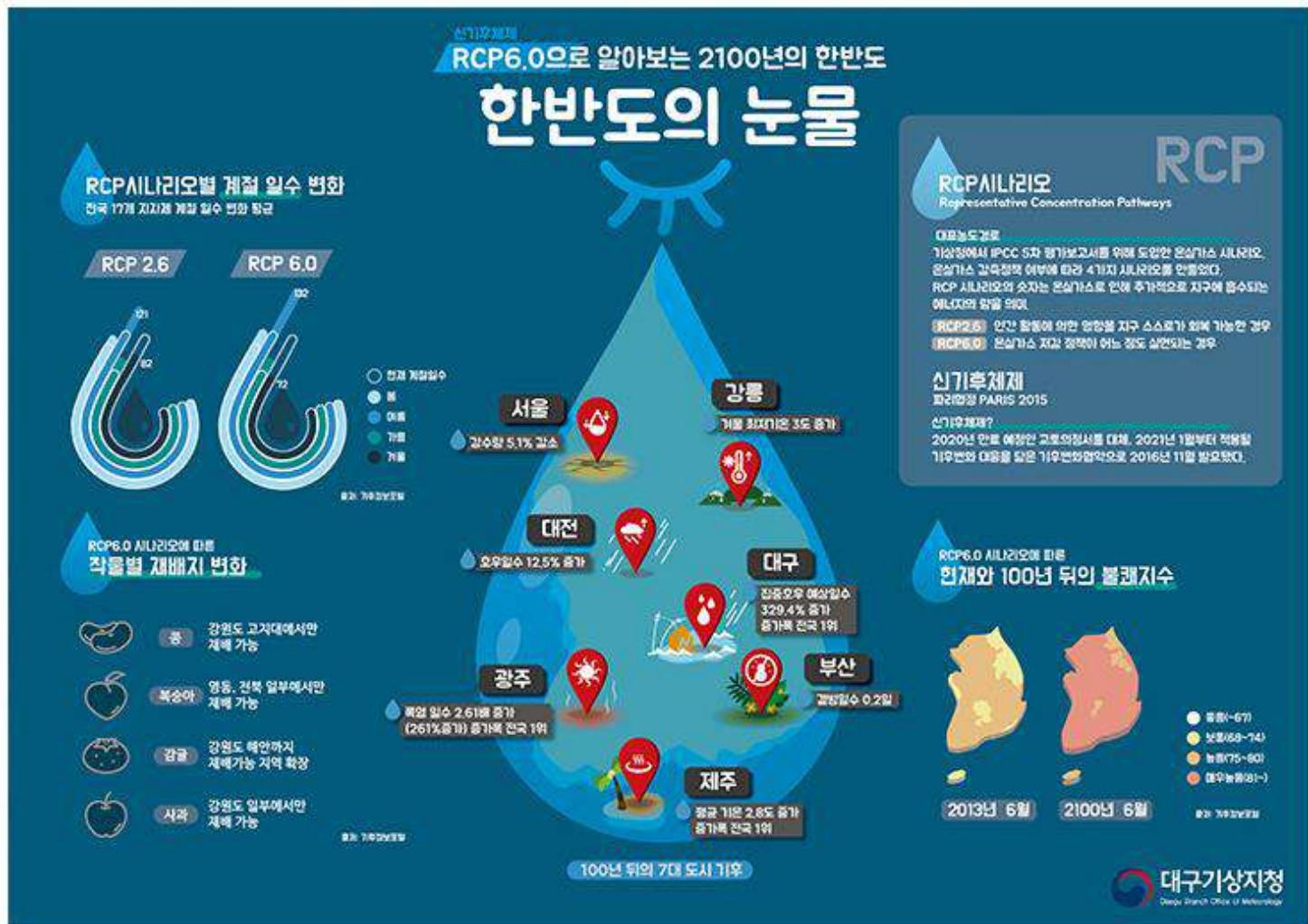
기후변화에 따른 100년 후의 모습을 가상현실 VR로 보다 리얼하게 경험 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단지 가상의 예측이 아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 된 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과와 망고 등 주요 과수재배지의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모습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추후 교육 자료로 활용 시 ‘과수원 편’, ‘봄꽃축제 편’, ‘열대야 편’ 등 VR 인포그래픽 형식의 시리즈 제작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입선

2018년 제2회 기후변화 인포그래픽 공모전

한반도의 눈물

김정민, 김정현, 김남희



2100년의 한반도의 모습을 신기후체제 대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준삼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다. 한반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은 M사에서 방영되었던 '눈물'시리즈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제목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표현하였다. 2100년에 한반도가 이상기후로 눈물을 흘린다는 제목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계절, 농업, 보건, 극한기상으로 정리하여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그래픽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으로 보는 100년 후의 기후변화

윤채현, 김지현, 김단비



기후변화 시대에 살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기후변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접근하다보면, 누구든 쉽게 접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귀엽고 단순화된 그래픽을 이용하였고 동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왕자와 공주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다.